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4월 26일(일) 제1586호

“새로운 부흥의 모델로 쓰임 받는 교회”



인천온누리교회 전경.

4월 26일 인천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 오전 11시 30분 본당에서 감사예배 드려

인천온누리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4월 26일(일) 오전 11시 30분 인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인천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는 이상혁 장로(인천온누리교회) 대표기도,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장로합창단과 관사성가대의 특순, 케이크 커팅식 및 기념 사진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승수 목사(인천온누리교회 담당)는 “이

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되는 것이 인천온누리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라면서 “인천온누리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모델로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4면>.

인천온누리교회는 지난 2006년 4월 30일 창립했다.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온 지역적 특성을 살려 선교와 전도, 나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이주민들을 위한 사랑 나

눔과 섬김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자리매김 했다. 2021년 7월부터 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한편, 인천M센터가 26일(일)개원한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69-4번지 2층이다.

인천M센터는 인천에 거주하는 이주민 가정과 교회, 유관기관 및 NGO 단체 등을 연결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돕고, 회복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2026 ‘The Way’ 한일청년연합집회

7월 3일과 4일 일본 인자이시(TCU)

2026 ‘The Way’ 한일청년연합집회가 7월 3일(금)과 4일(토) 일본 인자이시 문화홀과 도쿄기독교대학에서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그가 네 길을 곧게 하시리라)’(잠 3:6)를 주제로 막 오른다. The Way 관동위원회와 온누리교회 러브소나타가 주최한다.

7월 3일 열리는 ‘The Way’ 한일청년연합집회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하고, 데다이치 겐타(크리스천 싱어송라이터)가 특순한다. 7월 4일 도쿄기독교대학에서 진행되는 ‘YUME CONFERENCE(유메 콘퍼런스)’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선택식 강의, 연합기도회 등이 이어진다. 한일 스포츠 대회도 열린다.

참가를 원하는 온누리교회 소속 청년들은 4월 26일(일)부터 전화(02-3215-3759)로 신청하면 된다.

/ 박지혜 기자

5월 2~3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지정 차량만 교회주차장 이용 가능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이 5월 2일(토) 오전 7시부터 3일(일) 오후 6시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 교회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교회주차장은 거동이 불편한 성도와 주차카드 발급 차량 중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36개월 이하 동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서 확인한 다음 입차할 수 있다. 교회를 오가는 셔틀은 5월 3일(일)에만 운행한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2026 정신건강 세미나’ 참가자 모집

5월 19~21일 오전 10시 서빙고

2026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에 대한 통합적 치료와 돌봄’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0일(일)까지 하단 QR 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 원(식사, 간식비 및 교재비 포함).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에 대한 통합적 치료와 돌봄’은 5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막 오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채규만 교수(한국 및 미국 임상 심리 전문가) ‘불안에 대한 뇌 과학적 근거 기반 치료 기법’, 김성진 진료부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불안도 병일까’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현주 교수(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불안을 도전으로 바꾸는 자기효능감’, 장석연 원장(그로웨이브 심리상담센터) ‘우울과 불안 다루기’, 남윤영 박사(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공동체의 우울증 환자 돌봄’, 최용일 장로(청담경희한의원, 청담경희한방연구소 원장)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지키자’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2026 정신건강 세미나는 온누리교회, 한국기독교 상담심리학회, 한국교회 상담사역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회복사역본부가 주관한다.

문의: 02-3215-3532



/ 남현영 기자

‘기차는 행복을 싣고’

5월 25일 9시 서울역, 부모맞춤전도여행

전도사역본부에서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리조트로 ‘부모맞춤전도여행’을 간다. ‘기차는 행복을 싣고’를 주제로 떠나는 이번 맞춤전도여행은 5월 25일(월) 오전 9시 서울역에서 출발한다.

제천행 기차에서는 레크리에이션, 포스트잇 편지 쓰기, 가족사진 찍기, 가족 사연 방송 등 가족과 추억을 쌓는 순서가 이어진다. 포스트잇 편지는 리조트에 전시해서 모든 참가자가 함께 읽도록 할 예정이다. 청풍리조트 연회장에서는 식사와 콘서트, 여성민 목사의 메시지, 모바일 결산 카드 작성, 산책 등을 한다. 세례식은 귀갓길 기차 안에서 한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기차 타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싶은 성도들은 하단 QR 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는 “부모맞춤전도여행이 행복한 추억을 쌓고, 가장 귀한 복음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부모님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도사역본부에서는 2014년부터 경기도 안성, 충청남도 장항, 강원도 영월 등지로 부모맞춤전도여행을 다니고 있다. 문의: 02-3215-321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기훈 목사

신앙생활에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에서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역할 때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이 가장 어려운 말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구석구석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이 앞장서서 집안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일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말의 원어는 ‘아파르네오마이(Apameomai)’인데,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다’는 뜻입니다. 나의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철회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 주장과 경험, 기대와 의견을 철회하고, 상대방 의견을 따라가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돌아보면, 상대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철회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철회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생존형 자기 부인’도 있습니다. 은퇴한 남자들이 노후를 그래도 평화롭게 살기 위해 자기주장을 내려놓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부인의 세 가지 이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왜 어려울까요? 대부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철회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삶, 소유와 시간, 몸과 은

사 등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기주장과 의견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6:16).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살기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롬 14:8).

사는 것도 주의 것이요, 죽는 것도 주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둘째, 참 자유와 누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만 참 자유와 누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밋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 8:31~32).

사람이 근심과 걱정, 염려에 놀리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대와 계획, 욕심을 철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을 억누릅니다. 내가 소망해서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억압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리를 잘 아셨기 때문에 “고집하던 것을 철회해야 참된 자유와 누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빌 2:3).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자기주장을 내려놔야 합니다. 공감 능력을 기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그러지면 삶이 얼마나 힘들니까? 좋은 관계, 성숙한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성을 아셨기에 성숙한 관계를 만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마태복음 16:24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 부인을 고백하고, 내려놓기를 실천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크리스천의 삶’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예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인식됩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구약 <레위기>에 가면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태운다는 것은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소제, 곡식을 가루로 빵은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매일 자기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천의 삶은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 방법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권과 결정권을 드립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결정해 놓고, 그것들을 이루어 달라는 식의 기도는 선택권을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

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며 결정권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 여부의 결정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심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늘 갈등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과 경험, 기대를 모두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상식, 경험과 전혀 다른 예수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자기 부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을 계속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잘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사도가 된 것, 사도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며 가장 겸손한 고백도 합니다.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도 합니다.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 당연한데, 은혜로 구원받고 사역을 한다며 교만하지 않기 위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며 날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자기 부인을 고백해야 합니다.

넷째, 내려놓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나의 의견과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경험, 의견이 100% 옳다고 생각하면 내려놓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 것을 따라 주는 것까지 실천해야 합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 부인을 고백하고, 내려놓기를 실천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교회는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면 안 될까?

종교와 정치에 관한 대화 중에 누군가가 “교회는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 정치는 더러울 수 있지만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적 문제’를 피해야 한다고 믿는다. 때로는 교회가 타협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이런 말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로 이런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가? 누군가 “교회는 정치적 문제를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 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 문제, 환경 문제, 형사 사법 문제, 교육 문제, 교통 문제는 있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라는 범주는 없다. 왜 그런가? 정치는 문제라는 한 범주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 어떤 문제든 다루는 데 사용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도로의 어느 쪽으로 운전해야 하는가? 결혼의 정의는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정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문제라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도로의 어느 쪽으로 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과 각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정치적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는가?”이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다.

게다가 정치적 문제를 피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실제로는 일관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많은 교회가 ‘동성애’나 ‘결혼의 정의’ 같은 문화적 논쟁이 되는 주제는 피한다. 그러면서도 인종적 불의나 인신매매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다. 선택적으로 관여하는 태도는 우리의 진짜 관심이 정치 참여 자체가 아니라, 문화적 민감성을 건드리지 않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정치적 문제’를 피하겠다는 선택 자체가 이미 정치적 결정이다. 교회가 어떤 성경적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것은 어떤 정치적 사안이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정치적인 일이 있는가? 교회는

자신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는 분노 때문에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며, 결코 불친절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갈등을 피하는 것은 예수가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다. 누군가가 교회는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정치적 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는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다.”

“‘정치적 문제’를 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결정이다. 인기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근대 사상

인간중심의 근대 사상, 궤적과 허점들



서명수 장로
(수원온누리교회,
온누리세계관학교)

14세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에서 점차 인간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중심 이동은 17세기 데카르트에 의해서였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의심한 다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의심하는 행위 자체를 직관하는 존재, 즉 생각의 주체만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첫째, 사유의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옮겨왔다는 것. 둘째, 인간은 절대자의 도움(계시) 없이 오직 사유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과 자연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칸트는 그의 인식론에서 ‘지각-감성의 문제’와 ‘인식-오성(Understanding)의 문제’와 ‘사유-이성의 문제’를 구분했다. 지각은 감각적 경험이고, 인식은 지각된 것을 선험적 범주에 의거 개념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사유는 이 개념의 가치나 이념을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사과가 우리 앞에 있다면 지각은 무언가 있다는 직관과 그것의 색깔, 형태, 촉감 등 감각적 정보들을 수용하는 것이다. 인식은 이 정보들을 모아서 이것이 사과임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과는 왜 여기에 있지?’, ‘사과를 통해 절대자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등 존재 가치나 이념 등을 고찰하는 것이 사유다.

칸트의 인식론은 첫째, 인식은 철저히 감각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둘째, 인식은 사물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감각적 정보들을 모아 어떤 개념으로 구성한 것. 셋째, 사유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치나 이념 등의 초월적 문제는 경험적 근거가 없는 순수한 사유이며, 이율배반에 빠지면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칸트는 “초월 세계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한다.

이처럼 인식론은 자연에 대한 경험, 즉 감각계를 다룬다면, 그의 도덕론은 자유의 실존, 즉 초감성계를 다룬다. 칸트에게 ‘자유’란 여러 가능성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란 자연적 인과성(욕망·충동·경험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이성인 세운 법칙, 즉 ‘정언명령’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칸트는 인간에게는 이 법칙

다. 또한 칸트에게 인간은 도덕의 자율적 입법자다. 그래서 죄는 자율적 의지의 남용이기 때문에 구원은 스스로 도덕성을 회복하면 된다.

결국, 칸트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도덕성의 모델이고, 하나님은 입법자가 아니라 최고선의 가능성을 위해 소환된 존재일 뿐이다. 칸트가 보여준 것은 철학자의 겸손이나 신앙의 고백이 아니다. 칸트는 인간 중심의 철저한 인본주의 철학자일 뿐이다.

칸트가 이율배반을 근거로 인식과 사유를 구분했다면, 헤겔은 이 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율배반은 인식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총체적 인식’으로 가는 필연적 운동 과정이라는 것이다. 변증법이 바로 이 운동의 원리이다. 정신은 지금 당장은 모순들에 부딪혀 완전

를 인식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절대 진리의 확정, 나아가 절대자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가? 헤겔은 도덕적 근거를 절대정신, 즉 절대자에 두고 있는가? 대답은 ‘아니다’이다.

우선 헤겔에게 정신은 영혼이 아니다. 자연의 이해, 사회와 제도의 구성 그리고 예술·종교·철학을 통해 표현되는 이성적 현실 전체다. 또 절대정신도 절대자가 아니다. 이성이 현상과 본질, 주체와 객체, 유한과 무한의 분열을 넘어 완전한 자기 인식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헤겔의 절대정신은 이성이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기 완결성의 추구를 나타내는 것이지 초월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다. 여기에 변증법은 진리가 반 진리를 만나 새 진리로 가고 이것이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리의 확정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는 변한다’라는 생각, 진리의 역사적 상대성을 초래한다. 마찬가지로 도덕도 절대자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 이성이 실제 역사 속에서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것이 된다. 그 결과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결되는 진리와 도덕의 상대주의, 사회 제도의 급진적인 변혁,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 국가가 윤리적 삶의 완성이라는 생각은 니체의 ‘초인 사상’을 가지면서 전체주의를 낳게 된다.

데카르트, 칸트, 헤겔은 위대한(?) 근대 사상가들이고, 모두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역주권을 저버리고 인간이 중심이 되면 결국 오류에 빠지게 되고, 오류를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영적 조망이 없는 이론이나 생각은 그냥 ‘상대주의’나 ‘비(非)진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적 조망이 없는 이론이나 생각은 그냥 ‘상대주의’나 ‘비(非)진리’이다.”

을 따르려는 의지(선의지)가 있는데, 인간이 정언명령을 준수하며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덕’이라고 했다. 또 ‘행복’은 욕망이 충족된 상태, 즉 감각적 만족이나 즐거움 또는 성공 등을 말하는데, 행복이 덕과 일치하는 것이 ‘최고선’이다. 최고선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의 목표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는 덕과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고선은 ‘신’과 ‘내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가 초월 세계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철학자의 겸손일까? 또 최고선이 가능하기 위해 신과 내세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믿음의 고백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칸트는 초월 세계를 사유의 영역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종교를 철학의 대상으로 삼아버렸

한 끝에 이르지 못하지만, 모순과 충돌의 과정을 반복(정-반-합의 반복)하며 ‘절대정신(=총체적 인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헤겔은 칸트의 도덕 철학을 개인적이고, 형식적이어서 공허하다고 비판했다. 도덕은 개인의 내면적 결단이나, 사회적 현실 속에서 구현된 자유로 재정의했다. 이것이 바로 헤겔의 ‘윤리적 삶’이다.

이 윤리적 삶은 다음 세 단계의 공동체로 구체화 되는데, 첫째, 사랑과 신뢰에 기초한 ‘가족’, 둘째, 법과 제도에 의해 이익·시장·경쟁이 조정되는 ‘시민사회’, 셋째, 도덕이 법·헌법·정치제도에 의해서 객관적 현실로 완성되는 ‘국가’가 그것이다. 즉, 도덕은 관념적 명령이 아니라 제도화된 이성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면 헤겔이 칸트가 포기한 초월적 진리

인천온누리교회, 스무 해의 서사

복음과 선교 그리고 나눔

인천온누리교회가 써 내려 온, 써 나갈 'Acts29'

인천온누리교회가 스무 해 동안 써 내려 온, 그리고 써나갈 서사(敍事)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복음과 선교 그리고 나눔'이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했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로 시작한 그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됐다.

인천온누리교회 담당 김승수 목사는 "창립 20주년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이자 새로운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고백했다.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고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다음 페이지를 쓰고 있는 인천온누리교회의 역사와 비전, 그리고 새로운 여정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인천온누리교회의 지난 20년은 '하나님 은혜의 역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다. 확신 그 자체였다. 잘 알다시피 인천은 140년 전 조선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땅이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의 씨앗을 들고 첫발을 내디뎠던 '제물포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한국 선교 역사에서 인천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곳이 별로 없다. 바로 그 땅에 인천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 인천온누리교회의 여정도 선교 역사에 기록될 만큼 풍성했고, 기적 그 자체를 만들었다.

"2006년 4월 30일, 인천 구월동의 한 목욕탕을 개조한 건물 지하에 성도 50여 명이 함께 드린 예배가 인천온누리교회의 태동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인천온누리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5년 전에는 송도 국제도시 한 가운데 새 예배당을 세우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인천온누리교회의 역사는 곧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수 목사는 지난 20년 동안 수고한 목회자들과 인천온누리교회 리더십,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정말 귀히귀한 분들 덕분에 지금의 인천온누리교회가 존재합니다. 20년 동안 인천온누리교회를 섬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헌신을 말로 다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인천온누리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이



인천온누리교회는 다음세대를 세우고, 이주민을 살리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선포했다.

교회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온 힘을 다해, 충성스럽게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이 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모든 사역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 보석 같은 성도님들이야말로 인천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전환점 세 가지

인천온누리교회의 지난 20년을 하나의 장면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만큼 경험한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이다. 그 많은 순간이 겹겹이 쌓여 거대한 서사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분명 더 특별하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었다. 김승수 목사는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교회 창립부터 이어 온 선교 비전이다. 인천온누리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첫발을 내디딘 그 역사적 자리에 세워졌다. 그 태생적 배경에 걸맞게 교회 창립 순간부터 지금까지 선교에 집중했다. 새로운 부흥을 꿈꾸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열방을 향한 비전을 공동체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둘째, 송도 국제도시로의 예배당 이전이다. 지금의 예배당에 정착하기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의 과도기가 있었다. 이 기간 인천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상가, 캠퍼스, 컨벤션 센터 등을 전전하며 예배드려야 했다. 인천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이때를 '광야 시절'이라고 부른다. 매주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시 세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성도들이 '처치 빌더스(Church Builders)팀'을 자발적으로 구성해 헌신했다.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광야의 시간을 견디는 힘이였다. 마침내 2021년 7월 7일 송도 국제도시 새 예배당으로 이전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완수하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다.

셋째,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 서울-인

천 제4차 로잔대회' 베이스캠프로 인천온누리교회가 쓰임 받은 일이다. 인천온누리교회에 전국 교회의 기도자들이 매일 천여 명 이상 모여 중보기도를 함께했다.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주요 국제 리더십들의 중요한 회의도 여기서 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인천온누리교회 새 예배당을 송도 국제도시에 세워 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다.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 단체 리더들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려고 인천온누리교회를 미리 준비시키셨다. 이 경험은 인천온누리교회가 한국 교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품고, 그리게 되었다.

한 편의 영화가 끝난 자리, 벌써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

인천온누리교회는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김승수 목사는 앞으로 펼쳐질 인천온누리교회의 서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고 소개했다.

"지난 20년,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한 인천온누리교회가 앞으로 20년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故 하용조 목사님이 꿈꾸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이루고, Acts29 비전을 써 내려가는 인천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천온누리교회의 새 비전은 세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된다. 첫째,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다.

"송도 국제도시는 다음세대, 곧 차세대와 대학 청년, 젊은 부부가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특성을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천온누리교회에 많은 차세대와 대학청년들을 보내주

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인천온누리교회에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이주민을 살리는 교회다.

"인천에는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그네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인천온누리교회에서 다양한 언어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더욱 확장해서 이주민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섬기는 사역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셋째,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인천온누리교회가 복음에 빛난 자로서 이제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천'이라는 선교적 땅 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인천온누리교회의 새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역시 이미 시작되었다. 그 중심에 인천M센터가 있다.

"인천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나눌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결론은 받은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매가 새로 개원하는 인천M센터입니다. 인천온누리교회와 인천M센터가 협력해서 이 땅에 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한국어 교육과 정착 지원, 상담과 직업교육, 말씀으로 양육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 예정입니다."

김승수 목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은 인천온누리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완수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게 있다고 했다. '본질'이 그것이다.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형식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되는 것이 인천온누리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인천온누리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모델로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인천온누리교회가 써 내려 온 20년은 한 편의 영화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역사였다. 그리고 한 편의 영화가 끝난 자리에서 벌써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목사가 들려주는 ‘선교사 이야기’

차별 없는 사랑 실천한 ‘에비슨 박사’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차세대)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던 개화기, 서양 의술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꽃피운 곳은 병원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병원 제중원(濟衆院, 1885)은 개원 직후 관료들의 부

패와 환자들을 향한 냉대로 인해 신뢰를 잃고 희망마저 놓아버린 ‘아픈 병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절망이 드리운 1893년, 캐나다에서 온 한 의료 선교사가 구원투수처럼 이 땅에 도착했다. 바로 올리버 R. 에비슨(Oliver R. Avison) 박사다.

에비슨 박사가 희망 잃은 병원을 살려낸 핵심 가치는 바로 ‘차별 없는 사랑’이었다. 당시 엄격했던 조선의 신분제 사회에서 에비슨 박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복음의 정신을 병원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세웠다.

에비슨 박사는 복음의 정신으로 신분의 벽을 허물었다. 양반과 천민을 막론하고 병원에 오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번호표를 주어 순서대로 진료했다. 당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했던 백정(白丁) 출신 환자까지도 번호표대로 치료하는 모습은 조선 백성들에게 충격과 더불어 큰 감동을 주었다. 이는 단순히 의료 기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등 정신을 실천해서 조선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내린 신분 차별의 벽을 허무는 영적 혁명이었다.

또한 고종 황제에게 요청해서 병원 운영에서 부패한 관리들을 배제했다. 제중원을 순수한 선교병원으로 탈바꿈시킨 용기 있는 결단력은 에비슨 박사가 가진 확고한 믿음과 사명감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준다. 1895년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왕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곁을 지키며 자신의 목숨을 건 헌신을 감당했던 것 역시 이 땅의 아픈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온누리 독후감대회 수상작



세브란스 병원에 세워진 에비슨 박사 동상(왼쪽).

“에비슨 박사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낡은 제중원 건물로는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동양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진 현대식 병원’이라는 거대한 꿈을 꿔다.

1900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는 “의료 사업은 한 교회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 하나의 큰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놀라운 초교파적 연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연설에 감동한 미국의 사업가 루이스 H. 세브란스(Louis H. Severance)가 병원 건축을 위한 거액을 기부했다. 이 기금으로 1904년, 서울역 인근에 세브란스병원이 탄생했다. 이는 당시 조선이 아시아 최고의 의료 시설을 갖추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에비슨 박사는 이 병원을 여러 교파가 함께 돕고 운영하는 ‘연합 병원(Union)’으로 만들었으며, 이는 한국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유산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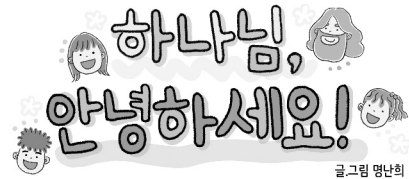
고기 잡는 법 가르쳐 지도자 양성

에비슨 박사의 비전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 머물지 않았다. 그는 ‘외국인 의사 몇 명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부족하다. 조선 사람들을 훌륭한 의사로 키워서 그들 스스로 백성들을 치료하게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서양 의학 교과서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지난한 과정을 감당하며 조선인 의사 교육에 매

진했다. 그는 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 돌보는 기독교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다. 그의 헌신적인 교육을 통해 마침내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7명이 배출되었다. 그중에는 가장 천대받던 백정 출신 박서양 선생도 있었다. 에비슨 박사는 백정 출신이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을 믿고 기회를 주었고, 박서양 선생은 훗날 많은 이들을 치료하는 진정한 영웅이 됐다. 에비슨 박사는 이처럼 조선인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놓아준 진정한 교육자였다.

에비슨 박사는 친구 언더우드 목사의 뜻을 이어받아 연희전문학교 교장까지 겸임하며 세브란스병원과 연희전문학교의 발전에 헌신했고, 이 두 곳은 훗날 연세대학교의 근간이 됐다. 에비슨 박사는 끊임없이 한국인 교수들을 채용하며 “외국인 선교사는 언젠가 떠나야 한다. 한국인이 스스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가르쳤다.

에비슨 박사는 이 땅에 의료 기술과 고등 교육을 심은 것을 넘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그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평등, 연합, 그리고 자립의 기독교 정신이다.



100.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 QUIZ

출제 범위: 4월 21~23일 본문 ‘시 103: 8~11, 103:13~18, 104:1~4’

1.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했나요?(시 103:11)

- ① 강물이 바위를 덮음 같이
- ② 나무가 씨앗보다 큼 같이
- ③ 하늘이 땅 위에 높음 같이
- ④ 별이 모래보다 많음 같이

2.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셨나요?(시 103:13)

- ① 아버지-자식 ② 선생님-제자 ③ 친구-친구 ④ 형-동생

3. <시편> 지은이는 온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은이가 노래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시 104:1~4).

- ① 빛을 옷 입듯 두르고 계신다
- ②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신다
- ③ 새들을 마차 삼으신다
- ④ 불꽃을 주의 종으로 삼으신다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주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선정).

“예수님, 저도 사랑해요!”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봤다. <예수의 생애> 랑 내용이 같다고 해서 반가웠다. 엄마랑 두란 노서점에 가서 책도 사고 같이 읽기 시작했다. 사실 엄마가 매일 읽어주셨다. 처음에는 솔직히 별 느낌이 없었는데 점점 빠져들었다. 그리고 웬지 모르게 도마가 자주 생각났다. 아마도 나에게 도마와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나도 도마처럼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스타 일이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갈 때 엄마에게

꼭 5시 50분 알람을 맞춰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꼭 내 눈으로 다시 확인해야 안심이 된다. 알람 없어도 엄마가 깨먹지 않고 데리러 나오실 텐데 나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엄마, 아빠, 언니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나를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항상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진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언니에게 예쁜 말을 하고, 언니의 말도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 저도 사랑해요!



조이안 학생
(서빙고 유년1부)

왜 지금, 교회에 ‘웰다잉’이 필요한가?

웰다잉(Well-Dying)의 본질 그리고 필요성



서정숙 권사
(중증로공동체,
웰다잉 전문강사)

오늘날 우리는 ‘오래 사는 법’에는 전문가가 되었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법’에는 여전히 서투르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여정이며, 그 준비 방식이 곧 그 사람

삶의 깊이를 드러낸다.

성경은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2)라고 고백한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채울지 고민하는 ‘거룩한 지혜’다. 이러한 맥락에서 ‘웰다잉(Well-Dying)’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기술이나 절차가 아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 질문이다.

교회에 웰다잉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

웰다잉은 ‘잘 죽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본질은 ‘잘 사는 것’에 있다. 즉, ‘잘 살기 위한 삶의 태도’이다. 단순히 임종의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며, 사랑과 용서를 미루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웰다잉이다.

호스피스 분야 권위자 브로니 웨어는 임종 환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다섯 가지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 ‘너무 과도하게 일한 것’,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한 것’,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을 꼽았다.

이 후회들은 모두 ‘관계’와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죽음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통장의 잔고도, 세상의 명예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과 나누었던 사랑, 이웃과 가족들과 맺었던 진실한 관계만이 영원한 가치로 남는다.

특히 신앙인의 관점에서 웰다잉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새로운 시작이기에 웰다잉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영적 준비 과정이다. 그래서 교회에 웰다잉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죽음을 회피하는 문화에서 잃어버린 삶의 본질을 찾게 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감추고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다. 병원, 시설, 장례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죽음이 일상 밖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나는 사랑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나는 용서를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평안히 하나님께 갑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웰다잉 교육은 이러한 현실에서 ‘언제 떠나도 괜찮은 삶’을 바로 오늘 사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

둘째, 관계 단절의 시대, 회복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웰다잉 교육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강력한 치유제다. 가족 간에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묵은 상처와 오해를 안고 살아가는 시대이다. 웰다잉 교육은 ‘용서’와 ‘화해’라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임종 직전에야 하는 유언이 아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일상의 언어이다. 웰다잉 교육은 용서와 화해, 감사와 사랑의 표현, 관계 회복의 용기를 실제적으로 다룬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교육이다.

셋째, 고령화 시대에 준비 없는 죽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웰다잉 교육은 고령화 시대, 교회의 새로운 돌봄 사역이다. 고독사, 무의미한 연명치료, 가족 간의 갈등은 현대 사회의 무거운 숙제다. 교회가 성도들이 육체적 고통을 넘어 영적으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도록 돕는 영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이는 죽음 이후의 천국만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는 ‘전인적 돌봄 사역’이다. 웰다잉 교육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이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방법, 가족과

의 건강한 소통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영적 역할을 감당한다.

크리스천에게 웰다잉이 더욱 중요한 이유

크리스천에게 웰다잉은 더욱 중요하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완성이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이다. 그렇기에 웰다잉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신앙의 마지막 고백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둘째, 화해와 용서는 미룰 수 없는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화해와 용서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 속 우리는 그 말을 미루면서 살아간다. “다음에 말해야지”,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라며 한참을 미룬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웰다잉 교육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셋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영적 훈련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삶을 더욱 분명하게 살아간다. 웰다잉은 두려움을 주는 교육이 아니다.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영적 각성의 도구이다.

교회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천국만을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공동체다. 웰다잉 교육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관계 회복과 공동체 강화, 노년 성도의 삶의 의미 회복, 다음세대

에게 삶과 죽음의 가치 교육, 임종 돌봄과 위로 사역의 확장 역할을 한다. 웰다잉은 선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확장하는 중요한 사역이다.

사랑을 미루지 않는 삶의 시작

웰다잉은 ‘사랑을 미루지 않는 삶’의 시작이다. 웰다잉은 죽음을 준비하는 소극적 기술이 아니다. 오늘을 사랑하기 위한 적극적인 결단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과 마주하게 된다. 그 본질은 놀랍게도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결국 사랑과의 관계와 사랑이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뒤로 미루며 살아간다. 바쁘다는 이유로, 어색하다는 이유로, 혹은 아직 시간이 많다는 착각 속에서 말이다. “미안하다”는 말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고맙다”는 마음은 표현하지 않은 채 지나가며, “사랑한다”는 고백은 마음속에만 담아 둔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이루지 못한 일들과 업적이 아니라,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다.

웰다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깨운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실천이 바로 웰다잉이며, 동시에 가장 깊은 신앙의 모습이다.

교회가 이 사명을 진지하게 붙들 때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죽음이라는 그림자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렌즈 삼아 오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성도들은 더 이상 마지막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관계를 회복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삶과 죽음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의 마지막은 고요하고도 깊은 평안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신앙 고백이다.

“나는 사랑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나는 용서를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평안히 하나님께 갑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웰다잉 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열매이다. 그러므로 웰다잉은 이 시대가 교회에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이며, 복음의 핵심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실천적 응답이다. 이 시대는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은 삶을 요구하고 있다. 그 삶은 결국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로 평가될 것이다. 웰다잉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이다. 지금,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교육 방향이다.

맛있는 말씀 해설(엡 2:14)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평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 된 것을 찢어 내셨고”(엡 2:14).

앞뒤 맥락을 고려할 때 본문이 말하는 화평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이 있다. 첫째, ‘하나님과 화해’라는 수직적 차원의 화평이다. 죄로 인해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평이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엡 2:3-5).

둘째, 본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화평에 주목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서로를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원수된 것을 허시고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엡 2:15).

바울에게 화평은 이 두 가지 차원, 즉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이 별개가 아니다. 사실 본문이 말하는 화평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핵심 원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유대인이요, 헬라인으로서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근본적인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화해는 마땅한 것이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화평은 당시 예베소교회를 둘러싼 상황과 가치관에 큰 파장을 가져다

과 세력의 논리, 민족과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는 많은 차별과 소외감을 낳았고, 반목과 갈등의 악순환을 심화했다.

바울은 로마제국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예베소 성도들에게 제국이 주는 힘에 의한 평화 대신, 희생과 화해에 기초한 십자가의 평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로마제국이 보여주는 힘에 의한 평화, 곧 폭력이나 억압으로 위협이 될 대상을 제거하는 방식의 평화는 임시적일 뿐이라는 것이다. 언제든지 전

높이 가르던 중간 담을 무너뜨려 둘이 한 몸 되게 한다. 곧,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는 원수된 것을 잠시 보류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강제적 통일성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결속된 한 몸 된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지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간절한 시기를 살고 있다. 나라, 조직 등 집단적 거대 담론의 영역 뿐이겠는가. 개인적 영역에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혹시나 있을 위협에 대비한다면서 중간에 높은 벽을 쌓아간다. 우

리가 바라는 평화란 진정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증오가 팽배하고, 서로를 힘으로 통제하려 하는 이 세상에 어떤 평화를 전해야 할까?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해 묻는다.



박근범 목사
(김포공동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힘으로 통제하려는 이 세상에 어떤 평화를 전해야 하는가?”

주는 호소였음이 틀림없다. 이 편지가 향했던 예베소는 로마 본토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이다. 교통의 요지인 덕에 군대 이동이 용이했고, 행정적 통제가 수월했으며, 반란 진압도 효율적인 도시였다. 곧, 로마제국이 외치던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작동하게 하는 상징적인 도시였다. 예베소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접근하려 했을 것이다. 힘

복될 수 있다는 불안과 긴장이 계속 심화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틀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 이러니하게도 로마제국이 줄 수 없는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평화를 가져다준다. 우리가 처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성소 휘장을 찢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CGN 콘텐츠와 함께 - ‘RE바이블’: 그 시대의 로열패밀리 형제

야고보와 요한



한기재 목사
(중앙성결교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인물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 사건이나 겹세마네 동산의 기도 사건 등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제자들이다. 그중에서 형제 관계인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인데, 어장을 소유할 정도로 부유한 배경에서 자랐다. 이른바 ‘그 시대의 로열패밀리’ 출신이었다.

이 형제에게는 ‘보아너제’라는 공통된 별명이 있었다. 아람어로 ‘우리의 아들’, 즉 천둥과 번개를 뜻한다. 이는 이들의 성격이 매우 불같고, 다혈질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야고보와 요한의 초기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다소 과격하고 자기중심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마리아 마을에서의 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하자 분노한 형제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묻는다(눅 9:54). 이는 구약의 엘리야처럼 불의 심판을 내려 본패를 보여주



겠다는 과격한 열심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으시며 오히려 포용적인 태도로 길을 우회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제각각 야망이 있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들을 좌우편, 즉 높은 자리인 1, 2위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막 10:37). 이는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샀고,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베푸는 데 있음을 가르치신다(막 10:44).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를 금지했다는 자랑 섞인 보고를 할 때도(눅 9:49), 예수님은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하며 “금지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눅 9:50).

이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야망에 가득 찼던 ‘우리의 아들’들이 변화된 결정적 계기는 오순절 성령 체험이었다. 성령을 통해 자신의 야망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순간, 이들의 기질

은 예수님을 위한 놀라운 열정으로 승화된다. 형 야고보는 결국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다. 예수님이 물으셨던 ‘고난의 잔’을 가장 먼저 받아 마신 셈이다. 헤롯 아그립바 왕의 칼날 앞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다. 이는 오늘날 스페인의 ‘산티아고(성 야고보) 순례길’로 기억되고 있다.

반면 동생 요한은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자 연사하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제자가 된다. 그는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 품에 기대어 심장 소리를 듣던 가장 친밀한 제자였다.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를 돌봐달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은 인물이기도 하다.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과거가 무색할 만큼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 그는 예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밧모섬에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계시를 받은 뒤 돌아와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했다.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2·3서>, <요한계시록> 등 총 5권의 성경을 기록하며 믿음(복음서), 사랑(서신서), 소망(계시록)을 아우르는 방대한 유산을 남겼다. 야고보가 가장 먼저 목숨을 바쳐 열정의 순교를 보였다면,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아 교회를 사랑으로 채우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

* 더 자세한 내용은 CGN 유튜브, 팟당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 영상 QR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지난 몇 년 동안 간절했던 취업 준비 끝에 지난해 10월, 드디어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첫 직장에 대한 설렘과 감사도 잠시, 현재 저는 직속 선임의 지속적인 과로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존경하던 사수였고, 저를 가장 아껴주던 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싸늘한 태도와 폭언은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해를 풀고자 대화를 시도하고 사과도 받기도 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과로로 인한 더 큰 심해졌습니다. 이제 막 경력을 쌓기 시작한 단계에서 이직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고, 사내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치 않아 깊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당한 상황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지혜를 주시고, 위축되지 않는 당당함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선임의 입과 행동 가운데 있는 가시를 거두어 주시고,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크리스천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사랑의 온도 조절

저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걸 참 어려워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로는 계속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서적을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책에 나오는 대로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울며 잠들지 않는 아이를 등에 업고 밤을 새울 때면 ‘아이 한 명 키우는 게 이렇게나 어렵구나’ 싶어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서 아이도, 저도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아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에 있던 전화선이나 전기선을 치우느라, 무언가를 잡고 일어설 때면 선반 위나 소파 위를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육아휴직을 하고 매일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정문까지 동행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엄마, 저 이제 혼자 갈게요”라더니 앞서가던 친구 이름을 부르며 뛰어갔습니다. ‘난 이제 하려고 휴직했는데?’ 하는 생각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또 어느 날은 “오늘 엄마 말 듣고 이 옷 입었

다가 땀띠가 났어요”라고 말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아침마다 일기예보를 보고 스스로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아이가 신생아 때는 모든 걸 의존하기 때문에 저의 삶을 잠시 멈추고 아이에게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저에게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실행하는 일들도 생겨 놀라기도 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아이가 지난주

“아이가 가진 고유성과 성장 과정에 맞게 사랑의 온도를 잘 조절해서 돕는 부모와 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깜짝 놀랄만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 답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양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2학년 아이의 일기 검사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이의 글씨가 아닌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조심스레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선생님, 죄송해요. 아이가 혼날까 봐 제가 대신 썼어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준비물이나 우산을 챙기지 못한 아이를 위해 몰래 교실 앞까지 와서 전해 주거나 신발주머니에 넣어두고 가시기도 합

니다. 다 큰 아이의 물건마다 부모님의 글씨가 보이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도보거리임에도 출근길 차로 데려다주려다 “학교 정문 앞에서 차로 내려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배움터 지킴이 분과 실랑이하고 욕설까지 하는 학부모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육식물을 키워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보기에 예쁘고 키우기 쉽다는 말에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파는 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물을 흠뻑 주라고 하셨지만, 물 주는 것을 좋

아하는 저는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 달이나 물을 안 먹고 살겠어?’ 라는 생각에 더 자주 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통통했던 잎이 흐물거리며 진녹색으로 변하고 아래로 처지더니 결국 썩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사랑은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전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대로 물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늘 돌아보게 됩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스스로 사워하고, 웃을 고

르고, 책가방을 챙기고, 학교에 갑니다. 진학도, 취업도, 결혼도 할 나이가 됩니다. 언젠가 지나 아이의 실패를 막아주는 것만이 부모의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뻐해 주는 것이 당장 도와주는 것보다 어려울지라도 그 또한 부모의 몫입니다. 그래야 아이가 비로소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 가정의 자녀가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인 내가 아이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계획하고 이끌려고 한다면 아이는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을 모두 다르게, 새롭게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이가 가진 고유성과 성장 과정에 맞게 사랑의 온도를

잘 조절해서 돕는 부모와 교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최민혜 교사
(부천온누리교회, 석천초등학교, <야누시 코르차크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닌 아름다운 길로 이끌기를> 저자)

이슈(Issue) 바로보기!

성경적인 조직과 조직문화 3

인간적인 행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모든 조직은 법 제도에 의해 규정된다. 법 제도는 구성원의 행동을 규정하고 최고 책임자 또한 법률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므로 법제화는 매우 중요하며 대부분 조직에서 핵심 부서인 전략 담당 부서가 법제화 업무를 맡고 있다. 법제화에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아담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기 전,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룬 <도덕감정론>을 먼저 출판했다. <도덕감정론>에서 그는 인간은 이기심과 이타심 모두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기심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적 이기심’과 모든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사익적 이기심’이 있다. 범죄적 이기심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감사 등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든다. 사익적 이기심은 계약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진하는 시장 제도를 만든다.

이타심은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 확산할 때 그 순수성을 유지한다. 예컨대 봉사와 신앙을 법률로 규정한다면 그 정신은 마음에서 사라진 채 행위만 하는 연극배우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시장은 전문성과 분업화를 기반으로 한 모

든 풍요의 근원이다. 풍요의 시대는 봉사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분업화된 시장경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칼 마스의 <자본론>에 반대되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의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풍요의 시대는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왕족과 귀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만든 금욕적인 프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과 도덕은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로테스탄트 윤리를 가진 청교도에 의해 인도된 것이다. 시장 제도를 통해 인류가 알게 된 아래와 같은 지식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다.

“자주 자본주의의 병폐를 이야기하지만,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준 풍요의 성과는 모든 비판을 능가한다. 시장은 풍성한 지식을 생산하며 또한 가장 위대한 지식은 시장에서 나온 지식이다. 그러므로 시장 앞에서 모두가 늘 겸허해야 한다. 독재자는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지만 더 큰 적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지도자들로 인해 우리의 자유가 서서히 잠식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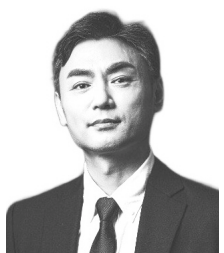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한 원죄를 물려받은 악인이기 때문에 법, 규정, 정관 등의 계약에 기반한 법치를 통해 조직을 규정한다. 이러한 법체계와 규정은 겉으로는 구성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시간과 지식의 축적이 가

능하게 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더 큰 자유를 구성원들에 되돌려준다. 국가는 삼권분립, 중앙-지방 분권, 언론과 사회단체의 견제 등을 통해서, 기업은 이사회, 위원회, 감사 제도 등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행위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장 자크 루소의 표현으로는 ‘일반 의지’가 각 조직원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 인

간은 불완전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도덕이 기반이 되어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과 도덕은 단지 지금 세대만이 아닌 다음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에 개인의 생애를 넘어서는 긴 역사로부터 검증된 법제화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에 오랜 역사 동안 받아들여지고 열매를 맺는 제도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긴 역사를 통해서 큰 그림을 보는 균형감각을 익혀야 80~90%의 열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10~20%의 역효과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



박성진 총장
(OCC공동체, 한동대학교 총장)

문화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기독교 유적 순례’ - 전주

걸인들의 후견인 ‘이거두리’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한국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저자)

이름도 특이한 이거두리(1872~1931)의 본명은 이보한이다. 족보에는 이성han으로 기록되어 있다. 익산 만경강변 목천포 근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처녀 때 아이를 가졌다. 혼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가진 것과 신분이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천대받다가 집을 나가버렸다. 이보한은 양반 부잣집의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계모에게 괘시당하며 살아야 했다. 그는 외로울 때면 전주에 있는 큰집에 갔다. 큰어머니가 이보한을 보듬어 주었다. 큰어머니 입에서는 언제나 찬송이 흘러나왔는데, 이보한이 평생 입에 달고 다녔던 노래였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람들은 그를 거두리라 불렀다. 별명은 거두리였지만, 집에서는 그를 거두어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거두는 사람, 거두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

1894년 미국인 선교사 테이트가 전주에 들어왔다. 테이트는 영향력 있는 양반을 전도하면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칠 거로 생각하고 이보한의 부친 이경호를 찾았다. 서양 오락케가 집을 찾아온 것이 못마땅했던 이경호는 상대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다짜고짜 사랑채로 들어와 큰절하며 어눌한 조선말로 “아버지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했다. 이경호는 “아무나 아버지라 하니 상놈이로구나!”

라며 혀를 꼴꼴쳤다. 그런데 테이트는 환심을 더 사려고 이경호의 귀를 만지면서 “아버지 귀가 참 잘생겼습니다”라고 했다. 기가 막힌 이경호는 종들을 불러 “이놈을 당장 끌고 가 버르장머리를 고치라”고 명령했다. 테이트 선교사는 곤죽이 되도록 맞았다. 그런데 당시 고종황제는 “선교사를 나와 같이 대우하라”고 특명을 내렸었다. 선교사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고종이었다. 이 때문에 이경호는 전라감영으로 끌려갔다. “예수를 믿겠다”고 선교사에게 사정을 한 뒤에 풀려났다. 집으로 돌아온 이경호는 가족회의를 열어 “누가 나 대신 예수를 믿겠느냐”고 물었다. 그때 이보한이 나섰다. 이보한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독신했던 큰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니 선뜻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전주서문교회를 다녔다. 김인전 목사를 존경했다. 김인전 목사는 민족 운동가이자 전주의 정신적 지주였다. 김 목사는 나라를 걱정하는 일이라면 그가 누구든 찾아갔다. 김 목사는 향교를 찾아가 유림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일이 잦았다. 이거두리는 김 목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의 삶에 투철한 민족의식, 애민의식이 있었던 것은 김인전 목사의 영향이었다.

이거두리가 주로 활동했던 곳은 전주천변 시장과 걸인들의 거주지였다. 그는 부자들의 사랑방에도 자주 드나들었다. 부자들에게 식량과 의복, 구호 금품을 받는 대로 굶주리고 헐벗은 걸인들에게 나눠주었다. 때로는 본인이 직접 소금을 짚어지고 다니며 팔아 그 수익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 그는 구호품을 내놓은 부자들을 칭송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렸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속으로는 배가 아파도 드러내놓고 거절하지 못했다. 인색한 부자라는 소문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어떤 부자는 그를 존경했고, 금품을 내놓았다. 이거두리는 전주뿐만 아니라 군산, 익산, 김제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걸인들을 도왔다. 그는 걸인들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일반인들이 꺼리는 일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걸인들이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거두리는 부자들에게 돈을 거두어 독립운동 군자금으로도 보냈다. 당대의 국장이라 불렸던 이화중선이란 여인도 선생을 존경해서 반지를 빼주었다. 그가 죽은 후 상해임시정부 살림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3.1만세운동 때에는 걸인들을 이끌고 선두에서 서서 만세를 불렀다. 그가 서울에 갔을 때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는 서울에서 만세운동에 동참했다. 그러다 한병에게 구타를 당해 기절하고 말았다. 그가 깨어난 곳은 감옥이었다. 그는 만세운동의 실질적인 주모자를 밝혀주겠다고 나섰다. 일본 경찰이 솔깃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대주고 후대해 주었다. 종로경찰서장이 “그래, 주모자는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겠소?”라고 물었다. 그는 “예, 주모자는 하나님인데, 주소는 구만리 장천이요”라고 답했다. 이 일로 온몸이 터지도록 매타작을 당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아무 데나 오줌을 갈기고, 똥을 싸서 벽에 발랐다. 일본 경찰은 “너무 때려서 미쳤나 보다”라며 풀어 주었다. 그는 전주로 돌아오는 길에 수원에서도 만

세에 동참했고, 전주로 돌아와서도 만세운동을 위해 움직였다. 걸인들에게 태극기와 선언서를 배포하는 일을 맡겼다.

한평생 돈을 모을 줄 몰랐던 그의 성품 때문에 가정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그도 늙으니 몸이 쇠약해졌고 결국 병들어 눕게 되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던 그는 1931년 8월 16일 숨을 거두고 말았다. 회갑을 앞둔 나이였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퍼지자 가장 먼저 달려온 이들은 전주의 거지들과 그의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자기 부모 형제가 죽은 것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상여 뒤로 10리가 넘는 인파가 따랐다. 그에게 은혜를 입은 걸인들은 장지에서도 “선생님 집을 마련해 드립니다”라면서 손으로 땅을 팠다. 정성을 다해 안장했다. 훗날 나무꾼들과 걸인들은 돈을 모아 비석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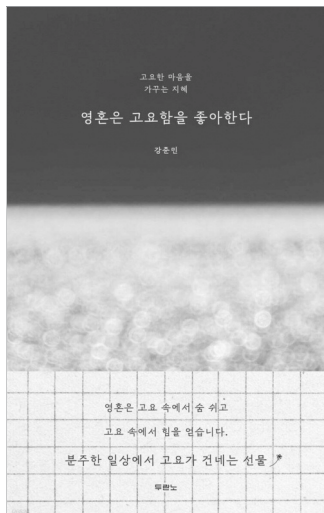
“李公 거두리 愛人碑(이공 거두리 애인비) / 平生性質 溫厚且慈(평생성질 온후차자) / 見人飢寒 解衣給食(견인기한 해의급식) 평생에 성품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 주리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혀 주고 먹여 주었다.”

수많은 일화를 남겼던 이거두리(이보한)는 전라도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그가 행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낮은 자들의 진정한 친구 이거두리가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찬송가를 불렀던 전주천, 싸전다리, 남문시장을 거닐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인지 생각해 보자(전주편 끝).

*** 이 글은 책 〈한국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전라, 경상, 제주편〉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란노 신간

참된 안식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영혼은 고요함을 좋아한다〉
강준민 | 두란노 | 17,000원

‘빠름의 민족’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인들의 성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우리는 빠른 속도와 끊임 없는 자극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강렬함과 속도는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한다. 바로 그들에게 〈영혼은 고요함을 좋아한다〉는 ‘고요의 영성’을 선물한다.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는 길을 제시한다.

〈영혼은 고요함을 좋아한다〉는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가 매주 써 온 묵회 서신 50편을 엄선했다. 엮은 영성 에세이다. 짧은 글 속에 담긴 깊은 묵상과 영적 통찰이 독자들에게 삶의 속도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회복하도록 이끈다.

고요해질 때 우리는 안식을 경험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된다. 소음에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오늘의 hymn(Hymn)

‘찬송가, 찬가’

안 괜찮아도 괜찮다!



〈나의 하나님〉
심형진 목사 ver.

시 일어설 힘이 되어준다.

찬양 〈나의 하나님〉은 QR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찬양 〈나의 하나님〉은 박우정 작곡가가 대학 시절 수업 중에 만든 곡이다. 당시 그는 자기 자신을 전혀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고,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막막함을 경험하던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곡을 썼다. 박우정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다.

“크리스천은 항상 괜찮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는 한다. 그러나 안 사랑스럽고, 안 괜찮아도 괜찮다. 지금 안 괜찮은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자리이다.”

조건 없는 사랑을 노래하는 이 찬양은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고, 지친 영혼에 따뜻한 쉼을 선사한다. 오늘도 무너진 마음 한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다



찬양 듣기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5월 10일까지 참가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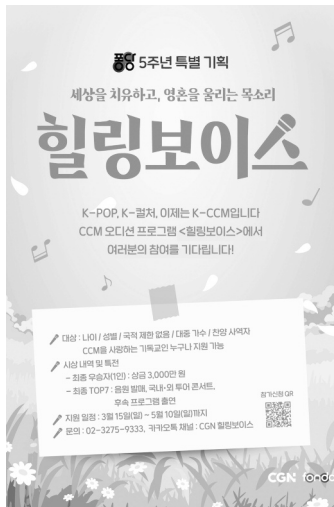
CGN이 주최하는 K-CCM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가 모집 기간을 5월 10일(일)까지 연장한다. 지원서와 무반주 가장 영상, 사진 파일을 이메일(cgnhealingvoice@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가장 영상은 자유곡 1곡과 지정곡 1곡을 선정해서 부르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해서 제출하면 된다. ‘힐링보이스’ 공식 홈페이지(healingvoice.cgnkorea.net)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데뷔한 프로 가수와 찬양사역자, CCM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는 참가자 모집 종료 이후 예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8월부터 본선과 결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 1인을 선정한다. 방송은 9월부터 시작한다. 최종 우승자 1인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을 수여한다. 결선에 진출하는 TOP 7인에게는 CCM 음원 발매, CGN 국내외 투어 콘서트, CGN 후속 프로그램 출연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02-3275-9333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ON편지〉재능기부자 모집

문서편집 및 디자인 분야

이천선교본부에서 〈ON편지〉재능기부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문서편집’과 ‘디자인’이다. 문서편집 분야는 선교사들이 보낸 서신을 정해진 분량에 맞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디자인 분야는 인디자인(InDesign) 템플릿을 활용해서 정보지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지원 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로, 문서편집 분야는 기본적인 컴퓨터 및 워드 프로그램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디자인 분야는 인디자인

사용이 가능한 편집 디자이너가 대상이다. 문의 및 신청은 이메일(ijh32116@gmail.com)로 하면 된다.

〈ON편지〉는 이천선교본부에서 발행하는 기도정보지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소식과 기도제목 등을 소개하고 있다. 격월로 발행하고, 선교 후원자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전달한다.

구독 신청 문의: 02-3215-3212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와이무슬림(이슬람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5월 16일~6월 27일 양재 두란노홀

와이무슬림(이슬람선교학교) 양재 토요일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5월 23일(토)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와이무슬림은 이슬람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프로

그램이다. 이슬람 역사, 문화와 신앙 체계의 발전과정,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이슬람의 예수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4주 차에는 이슬람권의 예배 참관, 이슬람 사원 견학, 현지 문화 체험 등을 한다. 선정 도서 중에서 한 권을 읽고 독후감과 간증문을 제출해야 수료할 수 있다. 문의: 010-6302-3482

/ 남현영 기자

일.하.세.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5월 9일~6월 13일 남양주 비전홀

일.하.세. 아카데미 ‘일터에서 성공하려면’ 2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남양주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일.하.세. 아카데미는 성경적 세계관과 직업관, 성공관 등을 바탕으로 일의 의미를 재정립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일터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한 토론 수

업 위주로 진행된다. 1주 차 ‘일, 하나님께 주신 소명-성경적 직업관’, 2주 차 ‘일터에서의 성공-성경적 성공관과 인간관계’, 3주 차 ‘일터 문화-성경적 문화관’, 4주 차 ‘일터 영성과 성경적 재정관’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5월 9일(토)까지 QR코드 또는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4949-0254



열방바자회 물품 기증 및 후원

5월 5일까지 안산M센터

안산M센터가 5월 10일 개최하는 ‘열방바자회’ 물품 기증 및 후원을 받는다. 이주민 공동체 여름 선교 활동 비용 마련이 목적이다.

열방바자회에 물품 기증 및 후원을 할 성도들은 5월 5일(화)까지 판매가 가능한 새 제품이나 사용이 가능한 깨끗한 물건을 보내면 된다. 주소는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문의: 031-491-9650

4월 세레자

〈서빙고〉
김미정 740728
이찬희 800206
장예나 940620

유아

권유이 240402

권오택 김구슬

김예안 230504

김민형 김규정

김태오 240719

김우석 도신혜

박은율 230413

박성은 송미나

송유진 250825

송성섭 김현진

송이진 250825

송성섭 김현진

정은우 250812

정우주 유재아

김주는 240321

김태영 장유정

최시은 220825

최병덕 김효정

하루아 230602

하진진 최진경

〈대학청년〉

■여호수아

류구현 920924

박경은 911017

진승현 971108

입교

류연제 970804

정성욱 831126

차재원 940813

■하늘

입교

김민제 050624

양 현 990627

■허브

김민혁 981003

고서연 020617

■SNS

김준우 911205

유아

임루아 241104

임성빈 한준희

정시아 241110

정환웅 김혜수

유아

김설아 251205

김성제 김소원

김제니 251008

김재준 구애리

강남E공동체, 전도콘서트 ‘봄을 봄’

지역 주민 150여 명 전도, 50여 명 결신

강남E공동체가 지난 4월 18일(토) 양재천 영동3교 아래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음악전도콘서트 ‘봄을 봄’을 개최했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전도폭발팀, 5분 전도팀, 순장학교 일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전도콘서트에서는 부채춤 엘림, 피아노 이지원 Grace J, 트럼펫 조소영, 기타 김유정, 전자 바이올린 아이린, 아코디온 조안나, 팝페라 김예은과 백성영, CCM 가수

지미션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전도콘서트 ‘봄을 봄’에서는 지역 주민 150여 명을 전도했고, 50여 명이 결신했다.

이미현 집사(강남E공동체)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남현영 기자

“경기장의 주인이신 하나님”

스포츠전도팀 특별 강의, 27일 서빙고 두란노홀

스포츠전도팀 특별 강의 ‘경기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4월 27일(월) 오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선교관 지하 1층)에서 열린다. 한국올림픽선교회 사무총장이자 국가대표선수총교회를 섬기는 황승택 목사가 강의한다. 스포츠 현장의 생생한 간증과 스포츠 선교의 중요성과 비전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010-8080-6967)로 신청하면 된다. 운동선수과 지도

자, 체육계 종사자 및 스포츠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박현 팀장(스포츠전도팀)은 “스포츠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방향과 도전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성도님이 참여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전도의 길을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10-8080-6967

/ 남현영 기자

청소년 일대일 양육자반 참가자 모집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일 19시 50분 온라인

청소년을 위한 일대일제자양육(이하 청소년 일대일) 양육자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0일부터 31일까지(5월 24일 휴강) 매주 일요일 19시 5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동반자도 함께 모집한다.

청소년 일대일 양육자반에서는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의 비전과 사명을 배운다. 청소년 시기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양

육하는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도와준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양육하는 양육자들을 교육 및 실습(3회)하고, 실제 청소년 일대일제자양육 16회를 진행한다. 청소년 동반자 양육까지 가능한 성도들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5월 3일(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없다.

문의: 010-8986-9735

/ 남현영 기자

45기 드림어게인 참가자 모집

5월 23일~6월 20일 서빙고 한동홀

45기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으로 인해 겪는 아픔과 불안 등에서 벗어나, 혼자서 삶과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

는 프로그램이다. 이혼한 남녀, 별거 중인 남녀, 소송 중인 남녀가 대상이다. 타 교회 성도도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5월 23일(토)까지 전화(010-3489-2080)로 하면 된다.

회비는 8만 원(자녀 돌봄 4만 원).

문의: 010-3489-2080

/ 남현영 기자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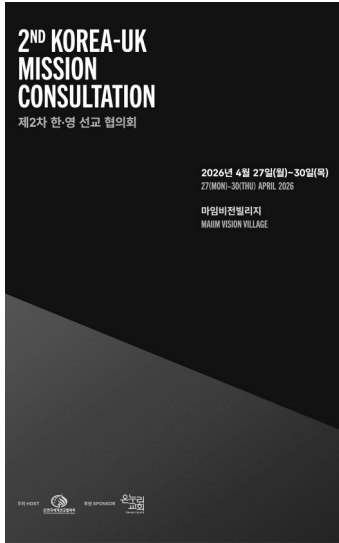
제2차 한국-영국 선교 협의회 개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마임비전빌리지

한국과 영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 현황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2차 한국-영국 선교 협의회(2nd Korea-UK Mission Consultation)’가 오는 4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마임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제2차 한국-영국 선교 협의회에서는 디지털·AI 시대 선교, 이주민·난민 사역, 다음세대 선교 등 급변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 양국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환영사, 특강, 소그룹 토론, 전체 회의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28일(화)에는 ‘글로벌 및 지역선교 상황에 대한 틀 설정’을 주제로 행사가 이어진다. 오전 개회발언은 이재훈 위임목사가 한다. 강대흥 사무총장은 ‘한국 선교 현황과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폴 스티븐, 폴&배키 하코트, 유사 라이프



스나이다, 세르히이 틱찬코가 ‘영국 선교 경험과 교훈’을 공유한다.

오후에는 한철호 선교사, 폴 반더 사무엘 박사 ‘글로벌 선교 환경과 다중삼적 선교’, 박성민 대표, 조성

민 대표, 마이크 토머스 목사 ‘디지털&AI 시대 청년 사역과 다음세대 선교’, 문창선 대표, 오사바 오타이 그베 목사 ‘난민, 이주민, 디아스포라 선교와 다문화 교회’를 주제로 발표한다. 고직한 선교사는 ‘우울증’을 주제로 선택강의를 한다.

29일(수) 주제는 ‘한국과 영국 간 가능한 실천 협업’이다. 오전에는 존 퍼널 목사, 피터 베이커 목사 ‘웨일즈 부흥’, 강은직 목사 ‘유럽 내 한인 교회·선교사와 영국·유럽 간 협력’, 한중희 목사, 데이비드 야그 나자르 대표, 에밀 사하데 박사 ‘이란 및 무슬림 이주민을 포함한 이주민 사역 협력’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후에는 소그룹 토론과 전체 회의가 이어진다.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 간 협력 문제’를 주제로 특별세션도 열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

5월 18~24일 Acts29비전빌리지 김사무엘홀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가 5월 18일(토)부터 24일(금)까지 Acts29 비전빌리지 김사무엘홀에서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비서구권 7개국(코트디부아르, 가나, 대만,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교회지도자 2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선교사역자 20여 명이 강의한다. 온누리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 사역 구조, 각 사역의 실제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콘

퍼런스 참가 국가와의 선교 협력 방안 논의, 온누리교회 예배 탐방 등도 할 예정이다.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 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안내, 통역, 음향, 중보기도, 식사 지원, 문화탐방 동행 등이다.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3786-6298

/ 홍하영 기자



행복한 가정을 위한 다섯 가지 지혜

양재 열린새신자예배 ‘가정의 달 특강’

양재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에서 가정의 달 특강 ‘행복한 가정을 위한 다섯 가지 지혜’를 개최한다. 5월 한 달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양재 사랑홀에서 열린다. 자녀 양육, 가족 관계, 가족 소통, 부부 관계 등 가정생활 전반의 주제를 다룬다.

이성근 선교사(미니스트리THE함께 대표, 약동뮤지션 부친), 권수영 교수(연세대학교 상담코치학), 최은

영 교수(햇불트리니티 기독교상담학), 강미향 목사(행가래운동본부장) 등이 강의한다.

김윤식 목사(양재 열린새신자예배)는 “가정의 달 특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지혜를 배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녀 양육, 부부 관계 등 고민을 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초청했다. 문의: 02-570-7522

/ 홍하영 기자

일본선교를 위한 첫걸음!

양재, 대전 차세대 연합 ‘신앙문화역사탐험대’

양재와 대전온누리교회 차세대 꿈이자리는땅 학생들이 순교 현장을 직접 밟으며 신앙 역사를 되새겼다. 지난 4월 5일(일)부터 9일(목)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에서 ‘신앙문화역사탐험’을 했다. 양재와 대전 차세대 소속 학생과 교역자, 교사 등 17명이 참가했다.

신앙문화역사탐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출발 3주 전부터 함께 모여 나가사키 신앙 역사를 배우고 익혔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준비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오우라성당, 26성인 순교 기념관, 윤전 지옥, 우라카미 성당 터 등 기독교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담긴 장소를 방문했다.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군함도와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평화공원 등을 찾아서 근현대 역사도 공부했다. 신재인 학생(대전 꿈땅)은 “신앙문화역사탐험을 준비하고, 다녀오면서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일본과 일본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시즌3 참가자 모집

5월 14일부터 매주 목 오전 9시 30분 온라인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시즌3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1시간 30분 동안 신학과 영성에 관한 영어 서적을 읽고, 함께 신앙적 통찰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5월 14일(목)까지 하단 QR코드 또는 전화(010-4047-0717)로 하면 된다. 회비는 월 7만원(매월 4회 기준, 첫 주 선납).

‘기적을 만드는 북클럽’ 시즌3에서는 스캇 펙(M. Scott Peck) 박사의 저서 《The Road Less Traveled(아직도 가야 할 길)》를 원서로 읽는다.

이정숙 교수(더맵글로벌 대표, 전 햇불트리니티신학대 학원대학교 총장, 교회사 교수)가 인도한다.

문의: 010-4047-0717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39기 참가자 모집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139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30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3, 4주 차는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5월 24일(일)까지 전화(010-4427-5025)나 아이스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40만 원(자녀 동반 시 1인당 7만 원 추가).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가정이 거룩하게 거듭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창조과학 봄 탐사 참가자 모집

창조과학선교팀에서 ‘창조과학탐사스쿨 봄 탐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6일(토)부터 5월 17일(일)까지 강원도 태백과 삼척 등지를 다니면서 구문소, 통리협곡, 대금굴, 동해단구 해변 등을 탐사한다. 현장 탐험으로 창조 세계를 배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5월 13일(수)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8만 원.

창조과학탐사는 노아의 홍수 등 성경적 대격변의 현장을 탐사하면서 《창세기》의 사실성을 현장에서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3334-2388

NGO 메디엑세스 BEE팀, 김제 백구교회에서 의료사역 실시

NGO 메디엑세스 의료봉사팀 ‘BEE팀’이 지난 4월 12일(일) 김제 백구교회에서 의료사역을 했다. BEE팀 소속 의료진과 스태프 등 봉사자 34명이 참여했다. 내과 79건, 치과 25건, 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 25건 등 총 129건의 진료를 했다. 투약 64건, 수액 100건을 처방했고, 76명에게 커트, 염색, 펌 등 이미용 서비스도 제공했다.

김제 백구교회(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21-1)는 1925년 6월 15일 문을 연 창립 100주년을 맞은 교회다. 필리핀, 몽골, 방글라데시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5개 이상의 해외 지교회를 건축했다. 성도 7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이다.

BEE팀은 NGO 메디엑세스 소속 사역팀 중에서 유일하게 농촌 교회를 순회하며 의료사역을 하는 팀이다.

BEE팀 봉사자를 모집한다. 농촌 교회를 섬길 약사와 젊은 의료진 등의 참여를 기다린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메디엑세스 홈페이지(www.mediaccess.kr) 하단 ‘봉사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13개국 83개 식수 시설 구축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13개국에 식수 시설 83개를 구축하고, 현지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2013년 세네갈을 시작으로 기니비사우, 남수단, 르완다, 말라위, 우간다,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아,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10개국과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식수 지원 사업을 이어왔다. 지난 4월 4일(토)에는 남수단 하이라와 지역 코르라물라에서 23번째 우물 완공 기념 축하예배를 드렸다.

국가별 식수 시설은 기니비사우 16개, 남수단 23개, 르완다 6개, 마다가스카르 2개, 말라위 16개, 모리타니아 1개, 부르키나파소 6개, 세네갈 1개, 우간다 6개, 코트디부아르 2개, 탄자니아 1개, 니카라과 2개, 인도네시아 1개를 설치했다.

/ 홍하영 기자

양육자반 수료자

■ 김성욱 목사반	김태언 김호숙 고영선 김재홍	옥현주 윤재필 이보영 이본규	임지혜 정낙현 주난향 진수찬
-----------	-----------------	-----------------	-----------------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반 수료 간증



/ 정필규 성도(이수공동체)

신앙의 기본을 다시 붙들다!

우리 가정은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가 오기 전에 부모인 우리 먼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아이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한 부모가 되고 싶어서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반 과정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이 아주 낯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익숙함이 곧 깊은 이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일대일제자양육 16주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다. 오랫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아내와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 가정은 새해 초마다 함께 큐티를 시작했는데, 어김없이 2월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곤 했다. 그런데 일대일제자양육 과정 속제로 큐티를 이어가면서 처음으로 오랫동안 말씀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작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꽤 큰 변화였다.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삶과 연결해서 돌아보는 시간도 귀했다. 아내는 가끔 내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나를 사랑해?”라고 묻곤 한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잘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랑하지”라고 답했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하면서 그 모습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음을 깨달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고 감사했다.

16주 동안 함께해주신 양육자님께 감사한 마음이 크다. 매주 귀한 말씀을 나눠주시고, 늘 따뜻하게 이끌어 주셔서 더욱 성실하게 과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의 적용까지 함께 고민해 주신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은 내게 신앙의 기본을 다시 붙들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다.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성품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곧 맞이할 아이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선물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다. 앞으로도 배우고 느낀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고 싶다. 곧 우리 품에 올 아이에게 말씀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정을 선물하기를 소망한다.

■ ‘모자이크 워크’ 순예배 소감



/ 이기훈 순장(과천의왕공동체 사랑3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

우리 순은 인도네시아 형제 두 명과 말레이시아 형제 한 명, 그리고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모자이크 워크’ 순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언어와 문화의 벽 앞에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몇 주 전 큐티 말씀이 떠올라 외국인 노동자인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된 이들을 더욱 따뜻하게 환대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다.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 출신의 형제들에게 음식 준비에 신중을 기했는데, 그들이 모국에서부터 신앙을 지켜온 크리스천이라는 소식을 듣고 한결 마음이 편안했다. 특히 다락방 담당 장로님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자칫 어색할 수 있었던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은혜롭게 이어졌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국에 길게는 10년 동안 머물렀던 형제들이 “한국인 가정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감사를 전했을 때였다. 오랜 시간 이주민으로 살아온 그들의 삶 속에 존재했을 단절과 외로움이 느껴져서 미안함과 감사가 동시에 밀려왔다.

신앙 안에서 나눔은 깊고 뜨거웠다. “여호와 의 집에 심긴 나무라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에 말레이시아의 K형제는 “누구나 따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3미터 높이의 나무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면서 장차 선교사를 꿈꾸고 있다는 기도제목의 나뉘서 모두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신학을 공부하고, 부목사로 섬기는 인도네시아 S형제는 한국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 애쓰는 영적 분투를 나누었다. 더불어 실직의 어려움과 유방암 수술 이후 회복 중인 아내를 위한 간절한 기도도 부탁했다. 비자 문제로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인도네시아 J형제 역시 재회를 준비하는 삶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국적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를 섬기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영적 도전이 되었다. 열방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 온누리 독후감대회 수상작



/ 박민정 성도(가정사역공동체)

예수님의 삶을 한눈에

모태신앙이기에 예수님 이야기는 <사복음서>를 통해 수없이 들어왔다.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런데 성경이 아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책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니까 더욱 사실적으로 다가왔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새롭게 와닿았다. 왕이신 분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세상의 소외되고 가난하고 천한 취급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았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들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아픔에 공감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아시면서도 찾아오셔서 내 아픔과 고통을 회복시켜 주셨다. 감사와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을 읽으며 예수님의 용서가 깊이 와닿았다. 한 바리새인(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발 앞에 엎드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발라 드렸다. 그 모습을 본 시몬은 그 여자가 얼마나 천한 여인인지 모르시는구나 생각했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기에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마리아도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거라고 하셨다. 또한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냐는 질문에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하라”고 하셨다.

최근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피해와 충격을 준 사람이 있었고, 이 경우에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 주인에게 큰 빛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자를 감옥에 가둔 하인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박혔다. 예수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내가 그 은혜를 잊고 다른 이의 죄를 곱씹으며 가슴에 품고 있다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책망하시고 가슴 아파하실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용서를 이루셨고,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이며,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끝없는 용서와 은혜다. 책을 덮으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떠올랐다. 큰 기대 없이 읽기 시작한 책인데,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예수님의 삶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 됐다.

■ 파주 31기 두란노아버지학교 수료 간증



/ 박웅 성도(파주 두란노아버지학교 수료자)

거룩한 새바람
일으키는 아버지

다니는 교회 담임목사님의 권면으로 두란노 아버지학교에 참여했는데, 사실 큰 기대는 없었다. 나는 이미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시간을 쓰는 나쁜 관습은 삶을 사는 평범한 가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3주 동안 이어지는 교육에서 내 마음의 변화나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생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다. 오히려 연배가 높은 형제님들이 찬양을 부르고 서로를 안아주라는 시간과 공감의 되지 않는 주제들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조장님의 안부 전화와 예스럽고 정형화된 문자메시지 역시 요즘 세대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공감되지 않았다. 두란노아버지학교도 바뀔 때가 된 것 같으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학교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4주가 지난 주일 저녁, 아버지께 연락이 왔다.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 보낸 편지를 받으시고 전화를 하신 것이다. “잘 지내느냐, 힘든 일이 있다면 아빠한테 전화하라”는 말씀과 함께 나를 생각하면 늘 미안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만감이 교차했다.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써주셨던 아버지가 더 못 해준 것을 미안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다. 뒤통수를 세계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두란노아버지학교 덕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나도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나는 아직 신앙이 없으신 사랑하는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힘없이 전하는 사랑의 통로인 아들, 사랑하는 아내 양수정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든든한 안식처인 남편으로 살고자 한다. 사랑하는 쌍둥이 서준, 서윤이에게는 영적 거울이 되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때 순간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탄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려고 ‘잘하고 있다’는 교만으로 나를 무너뜨리려 했다. 앞으로도 집요한 공격과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지금 이 다짐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거룩한 새바람을 일으키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장로칼럼

〈요한복음〉 3장 17절



강영재 장로
(양천공동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다. 많은 성도가 이 구절을 암송할 정도로 친숙하고 좋아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는 성경적 근거로 제시되는 핵심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나 다음 절인 17절을 함께 읽어야 이 말씀이 비로소 완성된다. 17절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가 잘 드러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직접 이 일을 하신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성령을 넣어주셨다. 아담이 하나님 뜻대로 피조물들을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실패한 것 같던 창조 목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어졌다.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며,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고 무력화해서(약 4:7),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그 의미다. 이 일이 이

루어질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창조를 회복하며 완성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문맥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왜 두 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는가? 유대교 두루마리 성경이나 초기 기독교 성경의 사본들에는 장과 절 구분이 없다. 장과 절 구분은 16세기에 성경을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중세 시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인쇄 편의를 위해 임의로 넣은 것이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장과 절의 구분에 매이지 말아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분리해서 보고 16절만 강조하다 보니 복음이 개인의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개인적, 이기적, 기복적으로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 역할을 하기보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된다.

혹자는 이를 ‘구원복음’이라고 부른다. 다른 복음이 없지만, 예수가 공생애 동안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천국) 복음’으로, 사탄의 통치하에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구원복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기 위해 베풀어주신 구원에만 머물러버린 게 안타까워서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인 것 같다.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은 이제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암송하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전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 회복에 쓰임 받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축원한다.

권사칼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정부용 권사
(서빙고 권사회 장례 총무)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교와 불교의 영향 아래 살았고, 결혼과 장례를 비롯한 일상의 많은 문화가 그 영향에서 형성된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예도 장례나 결혼 등에 그 잔재들이 남아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표현되고 지켜지고 있다. 또한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 1인 가구 등으로 변화하면서 장례 같은 큰 일을 가족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교회의 섬김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전통문화에서 벗어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우기 위한 온누리교회 권사회의 결심은 2009년 시작되었다. 이재훈 목사님이 “권사님들이 그동안 많이 배워셨으니 이제는 봉사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온누리교회 권사회 장례 섬김의 출발점이었다. 그 섬김은 천국환송예배부터 화장장과 장지까지, 슬픔의 예식이 아닌 찬양과 예배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혼란도 적지 않았지만, 선배 권사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 수고가 오늘의 장례 섬김을 있게 했다.

천국환송예배는 권사회에서 섬기고 있다. 발인 시간이 화장장 사정과 상주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양한 시간에 진행된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집에서 나올 때도 있는데, 권사님들이 기쁨으로 그 자리를 지키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유족들이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다. 이

른 새벽 차량 봉사로 권사님들을 섬겨 주시는 이상문 집사님의 숨은 헌신 덕분에 장례 섬김이 더욱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권사회는 2023년부터 천국환송예배에서 조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많은 유족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본다. 장례의 자리가 단순한 이별의 공간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한 번은 광명공동체 양재옥 권사님의 자녀가 먼저 돌아가시고 홀로 사시다가 소천하셨을 때, 공동체 주관으로 장례를 섬기며 권사님들이 조를 짜서 상주의 자리를 지키고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그 헌신을 들으면서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번은 일산파주공동체 집사님이 K공동체에 연락을 하셨다. 친구가 K시에 사는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믿지 않는 분이었지만 모든 장례를 함께 섬겼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섬김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분들의 믿음 여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는 말씀을 의지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분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의 섬김이 말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장례 섬김에 헌신하시는 권사님들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예수 가족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신앙에세이



성은일 목사
(춘천새순교회)

나는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합격과 동시에 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다. 성도에서 전도사가 되어 유치부 사역을 맡으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원래 예민한 성격에 약한 편두통이 있던 나는 첫 사역지에서 겪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인해 편두통이 만성으로 악화했고, 급성 위경련도 자주 겪었다.

그 시절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였다. 앞으로 평생 목회를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벌써 속병으로 인해 몸에 변화가 생기자 언젠가 담임 목회를 감당해야 할 때 과연 이 건강 상태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부르심을 받았다

고 해서 모두가 목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깊이 고민한 끝에 집사든, 장로든, 간사든 어느 직분이든 주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몸 된 교회를 섬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나를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신 할머니가 소천하셨다. 부모님 이상으로 가까운 존재였던 할머니의 장례는 나의 모든 삶을 멈추게 했다. 장례를 마치고 깊은 슬픔에 잠겨 신학대학원을 휴학하고 사역하던 첫 부임지도 6개월 만에 사임했다. 그렇게 나는 신학대학원 인근 자취방에서 암막 커튼을 치고 모든 불을 끈 채 칩거 생활을 시작했다.

짧은 사역 기간이었지만 망가진 몸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만성 편두통과 위경련은 나를 더욱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두운 방 안에서 우연히 CGN 채널에서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보게 되었다.

당시 나는 기독교 채널을 보면 곧바로 돌려버릴 정도로 마음이 많이 닫혀 있는 상태였

앞아서 외친 복음이 나를

다. 그런데 그 채널에서 멈추게 된 이유는 하용조 목사가님이 의자에 앉아 설교하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누가 봐도 아파 보이는 육체의 연약함이 그 짧은 순간에도 느껴졌고, ‘저 목사는 누구길래 저렇게 앉아서 설교하실까?’ 궁금증이 생겼다. 설교를 듣는 동안 병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몸이 몹시 아프신 게 느껴졌다. 그런데도 떨리는 목소리로 담대하고 분명하게, 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어두운 방에서 홀로 고통 속에 있던 내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마치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처럼 가슴 속에 불이 타오르는 듯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날 이후 나는 인터넷과 여러 방송에서 하용조 목사님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목사님이 어떤 지병을 앓고 계셨는지,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그에 비

해 너무 작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목회의 길을 포기하려 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 또한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목회의 길을 다시 걸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 분이 삶을 다해 세우신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 이후 온누리교회 파트교역자로 섬기게 되었다. 신학대학원에 복학해서 과정을 마쳤고, 지금은 하나님이 하용조 목사님과 온누리교회에 주신 Acts 29 비전이 나의 비전임을 확신하며 사역하고 있다. 다행히 건강은 염려했던 것처럼 더 악화하지 않았고, 잘 관리하며 사역하면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 짧은 순간 보게 된 앞아서 복음을 외치시던 하용조 목사님의 모습이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던 내가 소망을 발견하게 했고, 나를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하용조 목사님을 알게 된 것과 온누리교회 일원으로 사역하게 된 것은 내 삶의 큰 감사제목이다.

서빙고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전 11: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를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0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주 토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얼 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방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방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일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조방춘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	--	---	--	---	--	---	--	---

양재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해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주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근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032.322.9686 토요일예배 10: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	--	---	--	---	--	---	--	--

수원031.895.6500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042.825.3642 토요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031.515.3521 토요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4:0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들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031.651.9680 토요일예배 10:2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9:0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꿈팡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032.437.9686 토요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팡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2층
--	--	--	--	--	--	---	--	--

강동02.475.9686 토요일예배 10:3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양지031.331.8171 토요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를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를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알렌홀(2층) / 고등부 10:00 알렌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064.794.8090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041.665.9686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팡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일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	--	---	--	---	--	---	--	---

이번 가정의 달은 <CGN 굿즈>를 선물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지금 바로 두란노서원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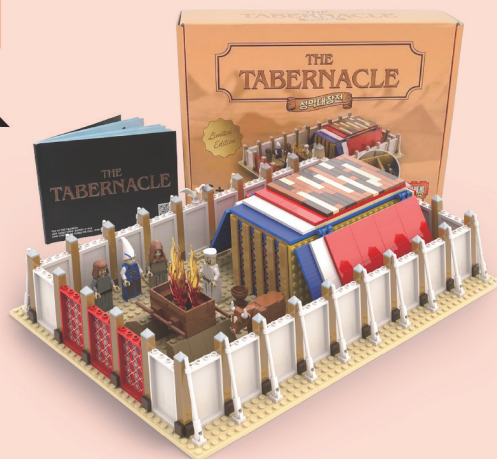


온라인 구매 링크



미니 블록으로 만드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장소였던
성막을 직접 만들어보세요.

판매가 69,000원



CGN 갓툰의 마스코트이자
목자님을 따라다니는 어린 양 <양순이>
귀여운 인형 키링으로 만나보세요.

판매가 10,000원



보드게임으로 만나는 선교지
남녀노소 누구나 기도를 통해
열방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판매가 35,000원



ἀπὸ Παύλου
바울로부터

바울의 선교 여정이 담긴
영상, 책, 지도, 책갈피를 한번에!
선교사와 목회자들에게 최고의 선물

판매가 100,000원



<CGN 갓툰>, <바이블록 성막대작전>, <선교마블 기도탐험대>, <바울로부터> 등
콘텐츠와 함께하면 더욱 의미있는 CGN 굿즈!



CGN의 모든 콘텐츠는 기독교 OTT **풍영**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